

한글 인장의  
시각적  
정체성 확립: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운여 김광업의  
인장을 중심으로  
Establishing  
the Visual  
Identity of  
Hangeul  
Seals:  
Focusing on  
the Seals  
Made by Kim  
Kwangup  
from the  
1950s to the  
1970s

한수영  
Han Suyoung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BFA Program, Visual Communication Design,  
Hongik University

- 서론
- 본론
  - 장 용어에 대하여
  - 인장 제작 방법에 대하여
  - 운여 김광업의 한글 인장 시각적  
분석
- 결론

지도교수: 김소연  
Supervisor: Kim Soyoun

## 1. 서론

모든 일의 결정, 완성, 완결을 뜻하는 마침표 역할을 하는 인장은 작은 외형과 다르게 압묵적 무게감을 갖고 있다. 특히, 인장은 단순히 도구를 넘어, 한 사람의 정신과 생명을 함축하는 중요한 존재이다. 한글 인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적은 획수를 새김으로써 한문 인장에서는 볼 수 없는 독창적 조형과 감각적 균형을 엿볼 수 있다. 나는 돌에 새김으로써 탄생한 한글 인장의 독특한 타이포그래피와 그 조형성에 매료되어 깊게 알아보자 한다. 이는 서예가 운여 김광업(1906-1976)의 인장에서 잘 드러난다. 그의 한글 인장에서는 과도기적 시대 흐름에 따라 다양한 변화에 대한 모색과 실험을 느낄 수 있다.

시대적 흐름의 영향이 중요한 만큼 연구 시기를 선정하는 것에 신중했다. 한글 인장의 고유성을 찾고자 한 노력과 시도가 이루어진 시기라는 기준으로 1950년대부터 1970년대를 그 대상으로 정했다. 1914년 일제는 경제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인감증명규칙’을 발표하며 인장의 사용을 강제 도입했다. 해방 이후 1961년 인감증명법시행령이 제정되었다. 1970년대에는 한글 전용 촉진책이 시작되며 한글 인장 사용이 확대되었다. 또한 1974년에는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는 문화적 변화도 맞았다.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부터 여러 분야의 급격한 변화까지 한글 인장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를 거치며 다양한 시도를 맞는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제작한 김광업의 인장 4개가 구체적인 연구 대상이 되었다. 김광업은 명망 있는 의사였지만 평생 서예와 인장에 전념하는 삶을 살았다. 특히 한글 인장의 정체성에 질문하는 과도기에는 근대와 현대를 잇는 역할을 했다. 인장은 단독이 아닌, 다른 작품에 짝혀 그 가치를 발휘하므로 정확한 제작

기간과 이름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를 고려하여 제작 연도가 아닌, 인장이 찍힌 작품 연도를 기준으로 조사했다. 또한 과거 제작한 인장이 후에 다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장 연도를 범위로 접근했다.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 인장에 새겨진 글자로 이름을 임의로 설정하였으며 동일한 이름일 경우 번호를 매겨 이해를 돕고자 했다.

연구 방법은 문헌 자료, 시청각 자료, 국립 한글 박물관 견학을 사용했고, 다양한 매체와 방법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글자를 새기는 것은 쓰는 것과 철저히 다른 차원의 관점과 과정이 반영되는 일이기 때문에 인장 제작 과정과 관련 전문 용어를 우선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각적 분석 기준을 세워 김광업의 인장을 관찰했다.

## Int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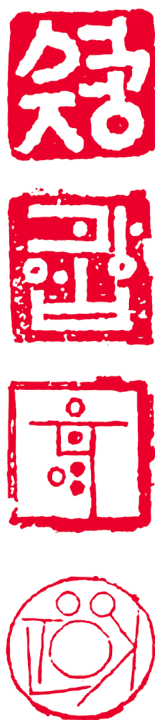
The seal serves as a punctuation mark revealing the significant meaning of decision, completion, and conclusion of all matters. Despite its small appearance, it holds implicit weight. More than just a tool, the seal is an important entity that symbolizes the spirit and life of a person. The Korean seal allows for a glimpse of original formative aesthetics and sensuous balance with its overwhelmingly small number of strokes that cannot be in the Chinese seal. I am fascinated by the unique typography and formative sense of the Korean seal, created by carving it into stone, and have decided to explore it further. We can find the uniqueness in the seal of calligrapher Kim Gwangeop (Unyeo, 1906-1976). In his Korean seals, one can sense his pursuit and experimentation with various changes according to the flow of transitional times.

In light of the significant trends of the times, I carefully

selected the research period. I chose to focus on the period from the 1950s to the 1970s, as it was a time when significant efforts were made to understan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seal. In 1914, the Japanese government introduced the 'Seal Certification Rules', which mandated the use of seals to regulate economic activities. Following independence, the Seal Registration Act was enacted in 1961. The 1970s saw an increase in the use of Hangeul seals due to the launch of an Exclusive Policy for Hangeul Use. Moreover, a cultural shift occurred in 1974 with the opening of Seoul Subway Line 1. From the impact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rapid changes across various domains, the Korean seal underwent numerous transformations during the period spanning from the 1950s to the 1970s.

Between the 1950s and 1970s, Kim Gwangeop, a well-known doctor, created four exceptional seals. Despite his background in medicine, he dedicated his life to calligraphy and seals, which played a crucial role in connecting the modern and contemporary periods during a transitional phase for Korean seals. However, it's challenging to determine the exact production period and name of the seals because they were often stamped on other works to showcase their value. To address this issue, my research is based on the year the seal was stamped, with consideration given to the likelihood of future use. Additionally, to aid understanding, names were randomly assigned using the letters engraved on the seal, with numbers used for duplicate names.

The research incorporated literary materials, audio-visual



[그림 1]  
위부터  
석정(1950년대),  
광업(1960년대),  
운여 1(1970년대),  
운여 2(1970년대)  
(출처: Youtube 서예문화  
'최초 한글 인장' 영상)

resources, and a visit to the National Hangeul Museum, embracing diverse media and methodologies. Recognizing that engraving letters entail a distinct perspective and process from writing, we commenced by scrutinizing the seal production process and relevant technical terminology. Subsequently, we devised a visual analysis criterion and examined Kim Gwangup's seal.

## 2. 본론

### 2.1. 인장 용어에 대하여

인장의 시각적 분석 이전, 용어와 의미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장'과 '전각'을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는데, 전서는 한자 이전의 형태를 가진 글자이며 전각은 '전서(篆書)를 새긴다'는 의미로 전서를 새긴 경우에만 사용하기 적합한 단어이다. 추가로 이 연구에서 자주 사용한 용어는 인면(인장의 면), 주문(붉은 인주가 만들어내는 문자), 백문(흰 여백이 만들어내는 문자), 각도(인장을 새길 때 사용하는 칼), 인재(인장의 재료)로 정리할 수 있겠다. 용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인장의 제작 과정을 지칭하는 용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만큼 인장의 제작 과정은 섬세하게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져 있고, 많은 정성이 담긴 중요한 영역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 2.2. 인장 제작 방법에 대하여

사람에 의해 탄생하는 글자는 어떤 행위와 도구로 만들어졌는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단단한 물체에 새김으로 탄생하는 한글 인장은 뚜렷한 개성이 돋보인다. 따라서 여러 제작 단계 중 '글자를 그리기 위한 준비 단계'<sup>1)</sup>와 '글자를 조각하는 단계'<sup>2)</sup>에 집중하여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1. 글자의 형태, 2. 인면 공간, 3. 읽기 방향을 시각적 분석 기준으로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글자의 속공간과 획 변화를 중심으로 한 글자의 형태, 인면 공간의 글자 배치와 여백 비율, 그리고 읽기 방향에 따른 가독성이다. 한글은 속공간의 크기와 비율에 따라 인상이 좌우되므로 중요한

- 1) 각도기로 글자의 간격과 균형을 맞춘 후, 연필로 조각할 글자를 그린다.
- 2) 인재에 고정하고 적절한 각도로 초벌 조각을 한 후, 여러 번 새김으로 완성해 간다. 마지막으로 거울에 비춰 가독성을 검사한다.



[그림 2]  
'석정' 한글 인장 글자 형태,  
인면 공간, 읽기 방향 시각적  
분석

기준이 된다. 또한 글자의 한 획을 한 번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새김으로써 하나의 선 방향, 굵기, 속도가 좌우되므로 글자 획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인면의 공간 구성은 인장의 질서를 부여하고 규칙을 만들어내는 요소로 시각적인 시선을 끌기 위해 글자와 여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공간을 가득 채우기도 하고, 허와 실의 공간 계획을 세우며 글자가 가진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구조적으로 조화로움을 갖춰야 한다. 더 나아가, 인면에 맞추어 글자 배열이 바뀌는 인장은 특유의 읽기 순서를 가지기에 어느 지점부터 읽는가에 따라 가독성이 좌우되어 분석 기준에 포함했다.

2.3. 운여 김광업의 한글 인장 시각적 분석  
1950년대부터 1970년대의 과도기적인 시대 흐름과 인장 용어 및 제작 과정에서 도출한 시각적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운여 김광업의 한글 인장 4개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석정 (1950년대 제작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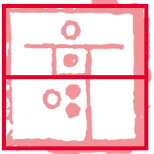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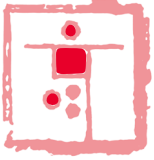
글자 형태: 글자의 획이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며 둥글게 마감된 획 끝이 안정적인 인상을 준다. 또한 ‘ㅅ’과 ‘ㅇ’의 속공간은 두꺼운 글자 획과 인면을 가득 채운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속공간을 가진다. 특히 ‘ㄱ’과 ‘ㅅ’이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과 ‘ㅅ’이 둥글게 굽어 독특한 형태를 보이는 것과 같이 글자의 재밌는 속공간 활용이 돋보인다.

인면 공간: 인면 중앙 4분할을 기준으로 모음 자음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배치되어 안정적인 느낌을 전달한다. 백문으로 제작된 인장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백이 남긴 글자와 붉은 인주의 고른 면적 비율은 균형적이고 고른 인상을 남긴다.

읽기 방향: ‘석’과 ‘장’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읽게 되는데, 인면을 4분할로 사용함에 따라 자칫 2개의 글자가 아닌



[그림 3] '광업' 한글 인장 글자 형태, 인면 공간, 읽기 방향 시각적 분석



[그림 4] '운여 1' 한글 인장 글자 형태, 인면 공간, 읽기 방향 시각적 분석

4개의 글자로 읽힐 수 있는 약간의 낮은 가독성을 띠다고 생각되었다. 이를 통해 1950년대 한글 인장은 한글의 안정감과 균형감을 유지하려는 시각적 정체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 광업 (1960년대 제작 추정)

글자 형태: 글자의 획은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며 직선으로 단단하게 마감되었다. 'ㅇ'과 'ㅂ'의 속공간은 인면 전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작아졌다. 그러나 두꺼운 획과 수직 수평으로 각이 살아있는 글자의 조화로 계속해서 안정적이면서 기하학적인 느낌을 전달한다.

인면 공간: 인면을 가로로 3분할하여 상중하로 글자를 배치했다. 특히 광의 종성 'ㅇ'과 업의 초성 'ㅇ'을 수평이 되도록 나란히 하여 마치 사람의 눈, 그리고 'ㅂ'이 입을 보여주는 듯한 재미 요소와 리듬감이 느껴진다. 백문으로 제작된 인장이며, 여백이 남긴 글자와 붉은 인주의 고른 면적 비율이 재미와 안정감의 균형을 준다.

읽기 방향: 광의 'ㅅ'를 'ㄱ'과 합침으로써 한 번에 'ㄱ'이라고 알아보기 어렵다. 또한 'ㅇ'의 압도적으로 작은 크기로 인해 'ㅂ'을 'ㄱ'과 세로로 함께 합쳐 읽을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1960년대 한글 인장은 계속해서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한글의 기하학적인 형태 재미와 리듬감을 강조한 정체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 운여 1 (1970년대 제작 추정)

글자 형태: 글자 획이 전보다 얇아짐과 동시에, 그만큼 균형을 유지하고자 대칭적인 글자 형태를 보여준다. 얇아진 획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진 속공간을 통해 획과 공간 관계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인면 공간: 인면을 가로로 2분할하여 상하로 글자를 배치했으며, 'ㅅ'의 점과 'ㅂ'의 점들을 의도적으로 중앙 정렬하여 2분할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 주문으로

제작된 인장이며, 붉은 인주의 글자보다 흰 여백 비율이 많아지면서 전보다 실험적인 인상을 준다.

읽기 방향: ‘운’과 ‘여’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읽게 되는데, 글자 획이 연장되어 하나의 획으로 연결되며 글자의 구분 경계가 모호해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상하로 중앙 정렬된 글자 배치 덕분에 전보다 가독성이 높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를 통해 1970년대 한글 인장은 획이 얇아지며 불균형이 주는 변화성을 실험하는 정체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 운여 2 (1970년대 제작 추정)

글자 형태: 중심에 위치한 큰 원이 인장 자체가 파진 것인지, 하나의 장식으로 조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정확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이 연구에서는 글자의 영역으로 포함하여 다루었다. 글자 획이 더욱 얇아지는 것과 동시에 속공간이 커지며 전보다 탁 트인 인상을 전달한다. 특히 ‘ㄴ’의 직선미를 강조한 형태와 ‘ㅇ’와 원의 조화는 획이 얇아짐을 활용한 과감한 실험적 시도로 추측되었다.

인면 공간: 인면을 세로로 3분할하여 글자를 배치하였으며, 가운데 원을 중심으로 양옆의 대칭적인 균형을 보여준다. 주문으로 제작된 인장이며, 붉은 인주의 글자보다 흰 여백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독특한 인상을 남긴다.

읽기 방향: 기존 세로쓰기에서 벗어나 가로쓰기로 바뀐 점이 눈에 띈다. 또한 1950-60년대보다 글자의 구분 경계를 명료화하면서 가독성을 점차 개선하고자 한 노력이 느껴진다.

이를 통해 1970년대 한글 인장은 가독성에 대하여 계속해서 고민하고 개선하고자 한 시도가 있었으며, 안정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한글의 조형적 특징을 활용한 여러 실험적 시도가 이루어졌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림 5]  
‘운여 2’ 한글 인장 글자 형태, 인면 공간, 읽기 방향 시각적 분석

### 3. 결론

운여 김광업의 인장을 시각적 분석하여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한글 인장의 시각적 정체성 확립 단계를 정리할 수 있었다. 1950년대에는 일정한 두께의 획과 균형 있는 인면 공간을 활용해 한글의 안정감과 균형감을 유지하려는 정체성을 띠었다. 1960년대에도 계속해서 일정한 두께의 획을 추구했지만, 인면 공간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글의 기하학적 형태 재미와 리듬감을 표현하고자 한 정체성으로 발전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1970년대에는 획이 얇아지며 획과 속공간의 관계에서 섬세한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또한 붉은 인주의 글자와 흰 여백 공간의 비율을 실험적으로 다룸으로써 한글의 특징에 기반한 과감한 여러 시도와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체성이 확립되어 가는 흐름은 인장과 관련된 사회체제 변화와 새로운 문화의 도입으로 인한 복합적 정체성 확립이라고 생각한다. 일제 해방 후, 한글 자체에 대한 정체성이 자리 잡으려는 과도기적 시대 흐름에 인장이라는 새김 표현법이 결합하여 여러 실험적인 시각적 시도로 확장되었다고 본다.

물론 인장 특성상 정확한 제작 연도를 알 수 없는 점, 그리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된 부분은 이 연구의 분명한 한계점이었다. 또한 특정 인장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여러 양상의 한글 인장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한 점들이 또 다른 연구와 조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한글 인장의 시대적 흐름과 디자인적 시각성을 함께 연결 지었다는 측면에서 복합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이재인, (2012), 『한국의 인장문화』, 창작세계
- 서울역사박물관 (2023), 『서울의 인장포』, 서울역사박물관
- 석한남, (2002), 『전각, 세상을 담다: 청사와 운여의 문자세계』, 광장
- 예술의 전당, (2003), 『운여 김광업의 문자반야』, 미술문화원
- 남미숙, (2009), 『전각의 조형성 고찰 및 지도 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충청북도
- 허희태, (2008), 『명언명시로 감상하는 전각예술』, 아름나루
- 고재식, (2011), 『한양대학교 개교 72주년 기념 특별전: 印, 한국인과 인장』, 한양대학교 박물관
- 오민준, (2015), 「'인장'은 '도장'과 다르다」, 『타이포그래피 서울』, <https://typographyseoul.com/캘리그래피-산책-작품을-최종-완성하는-인장은-도/>
- 국가문화유산포털, 「한국인장의 개요」, [https://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inj/injangInfo.jsp&pageNo=4\\_3\\_1\\_1](https://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inj/injangInfo.jsp&pageNo=4_3_1_1)
- 국립중앙박물관, (1987), 「<한국(韓國)의 인장(印章)> 지상특별전(紙上特別展)」 <https://webzine.museum.go.kr/sub.html?amIdx=2659>